

문제 1

1. 일단 전체적으로 제시문 순서와 그 순서에 대한 근거는 좋습니다, 다만 중간에 근거서술적인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가에서 개인인 공평한 관망자의 관점으로 사회 체제의 규칙이 조정되고 욕구체계의 만족이 극대화되고 이를 상상력으로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어떻게 제시문 (가)가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나머지 제시문들에 비해 최고로 미치고 있는지 근거가 부족합니다. 공평한 관망자의 관점은 개인의 관점을 사회로 공감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확장한 것이므로, 사회가 개인에 의해 절대적으로 구성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는 다른 제시문들에 비해 개인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에 대한 근거서술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감점이라고 보여지네요.
2. “라에서는 개인이 도덕적이어야 집단도 도덕적이라고 본다.라에서는 정치 공동체는 유사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시민적 화합을 달성해야 한다.그러나 이는 시민들이 도덕적으로 건전해야 달성될 수 있고 덕스러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도덕에 대해 더욱 엄격하다. ”,이 부분과 “왜냐하면 자연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세력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또한 개인의 이기적 충동들이 합쳐져 집단의 이기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 이 부분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마지막 문단에 결론과 글 전체의 결론은 맞지만, 근거가 전혀 결론(주장)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질이 떨어지는 답안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답안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답을 쓰신 것은 아닌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문제 2

1. 1문단에서 “<문제 2>에서 제시된 갈등 상황에 대해 내포된 해법은 첫 번째로 제시문 [가]에 내포된 해법은 공평한 관망자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문제2>의 갈등상황의 해법과 귀결된다.” 계속 같은 문장이 서술되면서 글이 난잡해 지고 있습니다. 고쳐주셔야 하구요.
2. “ 제시문 [다]에 내포된 해법은 개인의 관점으로 <문제 2>의 갈등상황을 보는 것이다.제시문 [다]에서 집단은 개인보다 집단적 이기심이 있어 비도덕적이다.그런데 집단이 아닌 개인은 동정심과 배려심이 있고, 사회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상충된 요구와 주장들을 개인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문제 2>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 ” 이 부분은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문제의 상황은 현대 사회이므로, 개인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고 제시문에 따라 충동을 억제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해결가능하다 이 방향으로 가주셨어야 합니다.
3. “ 제시문 [라]에 내포된 해법은 개인의 도덕성을 기르는 것이다.제시문 [라]에서는 시민들이 도덕적이지 않으면 시민적 화합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즉 제시문 [라]에서는 개인의 도덕성과 집단의 도덕성이 일치하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한다.그러므로 개인의 도덕성을 기르는 것이 <문제 2>의 갈등상황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 ” 이 부분도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을 기르는게 아니라, 제시문 (라)의 논지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유대를 통하면 사회안에 부도덕한 개인들도 개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덕성을 기르는 제시문에 나오지 않은 방법이 아닌, 유대를 통해 해결한다고 하셔야 (라)에서 해결책을 찾으시는 겁니다. 발문 불이행이죠.
4. 마지막 문단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글자수를 맞추기 위한 내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물론 답을 맞추고 반복한다면 깔끔하게 정리되겠지만, 틀린답을 반복한다면 그건 나 틀렸어!를 강조하는 것밖에 되지않겠죠?